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제호 글씨 朴秉濠

— 제42호 목차 —

하서 김인후의 성경설誠敬說 2
이애희(강원대 명예교수)

하서의 마땅함[宜]과 삶의 정성스러움[誠] 7
김경호(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하서 김인후의 경敬 사상 30
김기현(전북대 명예교수)

문광 스님, 유교 중용의 미발이발론,
중화사상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32

대한민국을 다시 보면서, 인촌 김성수金性洙도 다시 보아야! 34
주대환(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

『인촌탐사 김성수』..... 37

필암서원 산양회 소식 41

연회비 5만 원만 입금하시면 회원가입 됩니다. (사)필암서원산양회 계좌(농협 351-1175-2599-63)

하서 김인후의 성경설誠敬說

이애희(강원대 명예교수)

유학은 본래 인간의 도리를 탐구하는 학문임을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그런 까닭에 유학은 그 철학적인 바탕을 인격완성에 두며, 이상적인 인간의 완성을 향한 구체적인 방안의 탐구를 그 학문적인 목표로 삼는다.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孔子는 인간은 부단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그는 완성된 인간을 군자, 현인 성인 등으로 제시하면서 인간 완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그러한 인간의 자기 수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단지 이상적인 인간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유형 곧 소인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자기성찰을 통한 자아의 완성이 이상인理想人에 이르는 길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자의 이념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려 노력했던 맹자는 공자보다

구체적인 수양修養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맹자는 인간완성의 가능성이 인간자신의 내면에 존재함을 밝히고, 그러한 내면적인 본질로부터 인격완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맹자는 인간다움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도덕적인 본성善性이라고 규정하고, 동물적인 욕구와 다른 이 본성을 확충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비록 맹자가 인간의 본성 속에 선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맹자의 인성론人性論은 인성에 대한 수양이 필요함도 아울러 강조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그는 양성養性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맹자는 인간의 도덕성은 선善한 기질氣質과 밀접한 관계

를 갖는다는 점을 밝힘과 아울러 그러한 기질을 길러야 선한 본성을 발휘하여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의 ‘호연지기浩然之氣’와 ‘야기夜氣’에 대한 보양론保養論이 그것이다.

맹자의 이러한 수양론은 송대의 성리학자들에 주목되어 그의 성선설과 함께 형이상학적 이론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성리학의 핵심이론으로 발전되었다. 정주程朱계통의 이기理氣 심성설心性說은 바로 맹자 이후 유교적인 수양론의 가장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주계통의 거경居敬 궁리론窮理論이 바로 성리학의 수양론의 핵심이론이다.

정주계통 성리학의 수양설에서는 인간을 이기理氣의 묘합妙合에 의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다양한 개인차를 기질의 차이, 곧 기氣의 청탁수박淸濁粹駁의 결과로 설명한다. 따라서 성리학은 인간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유형인 성인聖人と 일상인日常人의 차이까지도 기의 청탁수박, 곧 기질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인간의 자기완성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기질의 고르지 못함을 극복하고, 기질의 영향권에서 왜곡된 본성

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하서河西는 성리학적인 수양이론을 계승하여 자신의 성정설誠敬說로 재구성하였다. 그의 인간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서는 인간도 우주자연과 같이 이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타고나는 기질의 차이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본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기질적 차이는 다른 사물의 경우와 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통한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탁박한 기질을 교정하여 청순한 기질의 성현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하서의 생각이다. 인간은 자기를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동시에 타자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는 성인이 아닌 보통 사람도 “비록 요순堯舜처럼 본성대로는 못하지만 탕무湯武와 같이 수행하면 넉넉함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하서는 인간은 학문탐구, 곧 자기수양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선심을 회복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이 자신을 수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수양修養의 첫째 방안은 유학본래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인 성경誠敬을 실천하는 방법이며, 구체적으로 성경의 실천을 통해서 맹자 이래의 방심放心을 수습하는 방법이다.

성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신체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 마음도 기氣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란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우리 마음은 이기적이고 소아적인 욕구에 의해 그 본래의 모습이 은폐되면, 자신의 내부에 담겨 있는 도덕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인간의 자기수양은 본래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하서河西는 본심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경敬에서 찾는다. 그는 “敬이란 사려를 안정시키고 정신을 수렴하여 도덕성을 함양하는 도리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우리 마음이 敬을 통해서 본모습을 회복하면 천하의 화평和平도 이루어짐을 역설한다. 그러나 하서는 인간의 자기완성은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자기완성, 곧 심성心性の 수양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으로 완성된 자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규범의 실천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즉 모든 행위를 예법에 맞게 해나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본성을 투철히 깨닫고, 심성의 수양을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실행이 병행되지 못하면 모든 앎도 허식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며, 실천적인 노력이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하서는 규범적인 자기완성의 방법으로 주경主敬 궁리窮理 역행力行的 세 가지를 제시한다.

그런 까닭에 그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아가 완성되면 참다운 삶이 구현된다고 믿었고, 그러한 자기완성을 위해 일생을 두고 노력했다. 또한 그는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敬’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주재主宰하는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을 주재하는 것은 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敬이 마음을 주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혼란되기 쉽다. 하서를 비롯한 성

리학자들은 이렇게 혼란되기 쉬운 마음을 바로잡아야 참다운 인간완성의 길이 도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흐트리지 않는 진실된 敬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진실된 상태인 敬이 마음을 주관할 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마음이 몸을 주관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음은 침착하여 안정되고 신중한 상태를 유지해야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마음이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敬의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敬은 우리 마음을 주재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마음은 몸을 주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 그 주재主宰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지는 ‘敬’의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곧 마음이 ‘敬’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안정되고 침착한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며, 그 때문에 모든 이치를 밝힘으로써 자신心과 신체 및 외부세계의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는 敬을 성학聖學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정의하며, 우리가 참다

운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잠시도 敬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의 상태는 “주일무적主一無適하고 정제엄숙整齊嚴肅하여 상약대월常若對越하는” 구체적인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확립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하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완성은 자신을 넘어서서 모든 이웃까지를 완성해 주는 단계에 이르러야 함도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공자孔子 이후 유학의 전통인 자신의 완성을 넘어서 만물까지를 완성해야 한다는 성물成物의 이상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물아일체관物我一體觀’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천지天地의 생성生成까지도 도와야 한다는 〈중용中庸〉의 ‘성지誠之’의 정신과 통하는 생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이상은 성경誠敬의 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이다.

맺음말

하서는 성리학적인 수양이론을 계승

하여 자신의 이론으로 재구성했으며, 그러한 이론을 철저히 자신의 완성을 위한 방편으로 삼아 자신을 수양함으로써 당대의 제자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조선 후기의 문풍을 진작시킨 군주인 정조正祖로부터 “나는 김하서 金河西에 대해서 특별히 경모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 도학과 절의와 문장을 다 갖춘 사람은 하서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서에 대한 평가는 주로 그의 도학적인 인격과 평생을 일관되게 살아온 사람과 지식인으로서의 인간상에 대한 평가였다면 그의 학문이 당대에서 미친 영향과 성리설性理說에 대한 체계적인 조망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의 성리학 관계 문헌이 일실되고 전해지지 않아 그 편린만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는 해도 그의 세계관 및 인간관을 통해서 볼 때 성리학적인 이론에 투철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의 수양론은 그의 인격이 후대의 높은 평가를 받은 사실에 부합되는 도학자道學者다운 면이 뚜렷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학문과 인간완성을 일치시켜나간 도학자로서의 삶은 오늘날

에도 본받아야할 점들이다. 그가 기묘 사회에 희생된 사람과 지식인을 복권시키기 위해 상소를 통해서 보여준 용기는 당대의 어느 지식인에 비견될 수 없는 점이였다.

어느 시대나 지식인의 현실 고발은 목숨도 버릴 각오를 가지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의 모순과 불의를 고발하는 데서 보여준 용기는 시대를 초월한 귀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러한 용기가 자신의 인간완성을 위한 수양의 이론인 성경론誠敬論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성경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서河西의 사회개혁과 현실고발은 모두 자신의 수양된 인격, 곧 안신입명安身立命하는 삶에의 자세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볼 때 그의 도학적인 학문관의 토대를 이루는 성경론은 오늘날과 같은 패륜적인 사회 현실과 업적주의와 몰개인주의가 판치는 세대에서 더욱 그 의미가 가중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서 김인후의 성경사상에 관한 연구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제2집 171~202쪽)
 에서 가져옴. 편집자 김재수

하서의 마땅함[宜]과 삶의 정성스러움[誠]

김경호金璟鎬(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1. 도학의 기준

이 발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서 김인후 河西 金麟厚(1510~1560)의 ‘마땅함[宜]’과 ‘삶의 정성스러움[誠]’에 근거한 삶-정치로서의 도학이다. 이 ‘삶-정치로서의 도학’의 주제는 오래된 유가철학의 전통에서 형성되어 온 ‘사문斯文의 도道’와 ‘도통道統’ 그리고 ‘천인합일天人合一’을 가능하게 하는 합당함과 정성스러움 그 자체인 ‘천도天道’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물음을 제기한다.

도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간단하나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 왜 그런가? 도학이란 어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매우 복잡

하고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 ‘구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도학이란 어휘는 고정되고 정형화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변형되고 새롭게 의미를 형성해 가는 ‘만들어지는 개념’이라는 뜻이다.

도학이란 낱말은 유교의 학술사상·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문斯文’의 ‘도道’에서 출현했다. 그 시발점은 중국의 송나라 시대까지 소급되고, 한당 유학을 거쳐 선진시대의 공맹 유학에 이른다. 우리가 비록 16세기 조선 시대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도학자를 언급한다고 해도, 그 연원은 선진시대로부터 10~11세기 중국 송나라 시대 이후 만들어졌던 신유학新儒學의 학술사상과 연관되어 있다.

도학자들은 당시의 유학자들이 중시했던 훈고학이나 시문詩文을 위주로

하는 문학자들이 아니라 공맹 이후 끊어진 ‘사문(斯文)의 도(道)’를 잇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 이와 같은 신유학과 도학에 대한 피터 볼의 논의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해하였던 한국유학뿐만 아니라 전라도 도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유효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북송시대에 정호와 정이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랐던 학자들은 자신들의 학술을 도학이라고 자각하였고, 스스로를 도학자로 여겼다. 사문, 곧 유학의 도(문화)가 북송과 남송 시기를 거쳐 과거제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고 참다운 유학을 지향했던 새로운 사대부 그룹의 모범으로 전유되면서 도학으로서 신유학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도학은 삶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철학적·정치철학적 실천과 연결된 일종의 ‘운동(movement)’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도학자들은 이론적으로 맹자의 성선

론을 근간으로 한 인성론을 수용하면서 성즉리(性卽理)의 명제를 통해 천인합일(天人合一)이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 핵심에 정호가 재발견한 ‘천리(天理)’ 개념이 자리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유학의 큰 틀에서 ‘도학 - 도학자’와 ‘비도학 - 비도학자’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구분의식은 이들과 다른 학술사상과 문화를 ‘이단(異端)’으로 규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도학을 가르치는 중요한 준거는 ‘마땅함 곧 의(宜)’에 대한 존중이고, 그래서 그러한 마땅함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 그것도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곧 성(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나 자신과 세상에 대면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호남의 도학(道學)은 16세기 조선 유학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연동하면서 인륜적 가치의 실현과 삶의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 이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비록 임진년과 병자년의 참혹한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인재가 희생되었지만, 지역을 지켜내고 외적을 물리치기 위

1) 피터 K. 볼, 심의웅 옮김, 『중국 지식인들과 정체성 - 사문을 통해 본 당송 시대 지식사의 대변화』, 서울: 북스토리, 2008; This Culture of Ours: Intellectual Transitions in Tang and Sung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1992).

해 창의倡義하고 거병擧兵했던 도학적 실천과 학술운동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다. 근대에 직면했던 한말의 시기에는 전라도의 도학적 전통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여 외세에 저항하는 학술學術 담론을 생산하고 구국을 위한 행의行義는 의병활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중심에 김인후의 도학道學이 놓여 있다.

우리는 기존에 순실淳實한 행의行誼나 지절志節과 도덕道德, 명절名節을 중시하면서 그것으로 ‘도학자’의 품모나 품격을 거론하기도 했다. 명절名節을 세우고 효성孝城과 행의行誼가 출처出處와 연관되어 드러날 때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자질을 도학 혹은 도학자라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기술되었던 도학이나 도학자에 대한 과거의 인상적 평가방식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설명을 생략한 주관적이고 단정적 방식의 논의는 더욱 곤란하다. 호남에 존재했던 유학의 학술 경향으로서 도학의 양상은 특정 인물의 생애사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도

있다.

문제는 유학의 흐름에서 무엇을 ‘도학’ 혹은 ‘도학적 흐름’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물음은 김인후의 도학이나 호남의 도학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과 맞물려 있다. 도학 혹은 도학자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먼저 도학이나 도학자에 대한 개념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지역의 도학이나 도학자 개인에 관한 탐구가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도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논제와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도학의 기준을 ‘김인후의 행의行誼와 문장文章 그리고 도학道學’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제까지 김인후의 도학이나 호남의 도학을 논의할 때 당위적으로 호출했던 것이 ‘절의節義 정신’이나 ‘의리義理 정신’이다. 그런데 절의節義나 의리義理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충절忠節의 행위와 지향들이 위계적인 평가를 전제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절의나 의리가 모두 자신의 정당함과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충절

忠節이었음에도 순절殉節이나 사절死節을 명절名節이나 기절氣節과 같은 행의行誼보다 높게 여겨 ‘죽음’을 앞세운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죽음은 당연히 추앙되어야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되면 된다. 그것이 학술이나 도학의 측면까지 포괄하지는 않는다. 이것만으로는 학술적 논의에 한계가 있다. 절의節義나 의리義理 정신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것은 도학의 학술學術을 전제로 할 때 가치가 배가될 수 있다.

17세기를 대표했던 송시열宋時烈(1607~1689)은 김인후에 대해 언급하면서 ‘절의’, ‘문장’과 함께 ‘도학’을 인물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다.²⁾ 도학 군주로 자처했던 정조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³⁾ 정조는 송시열이 ‘도학’ ‘절의’ ‘문장’을 겸비했다고 평가한 김인후를 문묘종사 할 것을 제기한다. 정조가 보았을 때 김인후는 문묘에 종사하는 것이 마땅한 조선을 대표하는 도학자였고, 정조에 의해 문묘에 배향

되었다.

2. 하서와 퇴계의 신실한 교유

1560년(명종 15, 경신庚申 8월 8일,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귀향하여 고향 광주 양림산 자락 임곡과 처가인 나주 사촌莎村 셋골을 오가며 지내던 고봉 기대승 高峯 奇大升(1527~1572)은 경상도 예안에 퇴거해 있던 퇴계 이황退溪 李滉(1501~1570)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다.⁴⁾ 지난 4월 보름쯤 이황의 편지를 받았고, 이에 대한 답신을 쓴 것이다.

이 편지에서 기대승은 출처진퇴出處進退에 대한 자신의 속내를 이황에게 전하면서, 인근 마을에 사는 한 도학자의 죽음을 전한다.

이곳에 하서河西 선생 김공金公이 계신데 장성長城에 사십니다. 저의 집과는 단지 오우명五牛鳴의

2) 『宋子大全』, 「河西金先生神道碑銘并序」; 『河西集』附錄 卷1, 「河西金先生神道碑銘」.

3) 『正祖實錄』 20년(1796, 병진) 6월 22일 기사.

4) 『高峯全書』, 兩先生往復書, 「答上退溪先生座前」, “가정(嘉靖) 39년 경신 8월 8일 후학 고봉 기대승은 삼가 머리를 조아리며 두 번 절하고 이 글을 퇴계 선생 座前에 올립니다.”

거리이므로 제가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서는 이 선생께 의지하여 전에 배운 것을 강습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께서 갑자기 1월 16일에 병을 만나 돌아가시니, 사도斯道에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있겠습니까마는 저의 불행은 더욱 심합니다. 매양 사색하다가 의심스러운 것을 여쭙어 볼 곳이 없을 때면 번번이 이 선생 생각이 나는데 별 수가 없게 되었으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슬픔을 참으려 하지만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께서도 이하서 선생과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니 부음訃音을 듣고는 틀림없이 상심하고 애통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⁵⁾

기대승은 다름 아닌 김인후의 부음을 이황에게 전하고 있다. 기대승이 이황에게 김인후의 부음을 전한 것은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기대승은 김인후와 이황의 친교를 잘 알고 있었다. 이황은 기대승에게 보내는 1560년 9월 1일자 편지⁶⁾에서 이렇게 적었다.

김하서金河西는 반궁津宮과 옥당玉堂에서 나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몸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 밖을 표류했습니다. 그가 처음 들어간 곳이 대체로 노장老莊에 있었기 때문에 중년에 자못 시와 술로 몸가짐을 무너뜨린 것을 애석히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듣자니 그가 만년에 이 학에 뜻을 두었다 하고, 근래 바야흐로 그의 학을 논한 문자文字를 보건대 그의 식견이 매우 정밀했습니다. 그가 한 거하는 가운데 터득한 것이 이와 같음을 생각하고 매우 가상하게 여겼는데 갑자기 고인故人이 되었다는 소식이 오니 비통함이 보통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 아들에

5) 『高峯全書』 兩先生往復書, 「答上退溪先生座前」.

6) 『高峯全書』 兩先生往復書, 「答上存齋契右」. “가정(嘉靖) 39년 경신년(1560) 9월 1일에 병인(病人) 진성(眞城) 이황은 눈이 어두워 함부로 초했으니 송구합니다.”

게 위로하는 글을 보내니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⁷⁾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성균관에서 함께 수학했고, 호당湖堂에서 함께 지냈던 적이 있었다. 이황은 김인후의 힘겨움과 방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니 “그 사람은 몸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 밖을 표류했습니다.”라고 언급한다. 세상사의 곡절이 누구나에게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는 고통 받고 괴로워하면서도 또 살아간다. 이황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황은 일찍 작고한 아버지 대신 대사헌을 지냈던 다섯째 형 李 濬(1496~1550)를 ‘엄부嚴父’처럼 모시고 존경했었다. 그런 형이 권신의 심복인 이무강의 탄핵을 받아 유배 중 사망했기에 김인후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황은 김인후가 “처음 들어간 곳이 대체로 노장老莊에 있었기 때문에 중년에 자못 시와 술로 몸가짐을 무너뜨린 것을 애석히 여겼었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말년에는 “그

가 만년에 이 학에 뜻을 두었다 하고, 근래 바야흐로 그의 학을 논한 문자文字를 보건대 그의 식견이 매우 정밀했습니다. 그가 한거하는 가운데 터득한 것이 이와 같음을 생각하고 매우 가상하게 여겼는데 갑자기 고인故人이 되었다는 소식이 오니 비통함이 보통 정도가 아닙니다.”라고 애도하고 있다.

이황은 기대승에게 또 다른 한통의 편지를 동봉해서 보냈다. 그 편지는 김인후의 아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이황은 김인후의 장남인 김종룡金從龍(1524년생)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 김종룡은 태인에 거주했던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사위였고, 태인의 이항과 장성의 김인후, 광주의 기대승과 태인의 이항을 오가며 편지와 학술적 논의를 전하고 있었다. 편지에는 당시 조선사회에서 선구적인 ‘태극음양’에 관한 도학적 토론이 있었다. 김인후는 도학의 도체를 밝히는 ‘태극음양’에 관한 논의를 이 당시 호남의 기라성 같은 도학자들과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존재가 김인후였다.

7) 『高峯全書』, 兩先生往復書, 「答上存齋契右」.

3. 하서의 출사와 도학

김인후는 1531년(중종 26년) 신묘辛卯 식년시에서 진사에 입격했다. 1532년(중종 27년)에는 이황과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강학하다가⁸⁾ 김인후는 1531년(중종 26, 신묘) 22세 때 식년시에서 진사과에 '1등 4위(4/100)'로 입격한 후 10여 뒤인 1540년(중종 35, 경자) 10월에 실시된 별시에서 '병과丙科 3위(06/19)'로 급제하여 출사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540년 별시의 최종 시험인 '대책對策'의 시제試題다. 시제는 '도학道學'이었고, 출제자는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었다.

도학이 수사洙泗의 전수가 끊어짐으로부터 다시 염락濂洛에 일어나 이정二程이 그 근원을 발명하고, 자양紫陽 주희朱熹가 그 실마리를 이었다. 당시 학에 종사하는 선비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 장장히 더욱 드러난 이는 누구이며, 학이 치우치고 엇매어서 스승의 종지를 잃은 자와, 또는 가

장 그 종지를 얻어 전하여 폐단이 없는 자를 낱알이 들어 말할 수 있겠는가. 주자와 더불어 동시에 나서 학으로써 세상에 이름난 자가 역시 많은데, 그 학이 주자와 더불어 같은 자는 누구인가 다른 자는 누구인가. 그 같게 된 것과 다르게 된 소이연을 낱알이 그 실상을 지적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그 같게 나간 자는 굳이 의심할 게 없거니와, 다르게 나간 자는 역시 취할 만한 것이 없는가. 나는 비록 덕이 적고 일에는 어두우나 군사君師의 소임을 담당하여 학을 일으키고 인재를 육성하여 세상의 학을 하는 자로 하여금 치우치고 엇매이며 다르고 같은 견해가 없이 하여 하나같이 염락의 바름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그 길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야 하겠는가. 제생諸生은 각기 평일에 강론하여 얻음이 있는 것을 편篇에 나타내도록 하라. 나는 장차 친히 보겠노라.⁹⁾

8) 『河西集』附錄 卷3, 「年譜」(24세).

김안국은 조광조와 함께 기묘명현을 대표하는 인물로 사화에서 살아남아 도학의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기묘사화 이후 한미하게 살았던 그는 1537년 12월 15일에야 직첩을 돌려받고 서용되었다.¹⁰⁾ 모재는 1538년에는 예조판서가 되어 『이륜행실도』를 간행하여 반포할 것을 요청하였고, 학교를 정비하는 등 침체되었던 도학의 활성화 시책을 폈다. 모재는 도학을 주도했던 이들과 그들의 행적과 학술에 대해 책문을 통해 밝힐 것을 요청했다. 도학을 새롭게 표창하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시기에 『소학』을 비롯하여 도학의 학술과 행의를 배웠던 인물들이 중앙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인물 중 한 사람이 김인후였다.

이 시기는 1537년(중종 32년) 10월에 김안로가 사사된 이후, 기묘사화에 관련되었던 인물들의 직첩이 돌려지고¹¹⁾ 서용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중앙에 도학적 인사들이 다시 포진하던 시기에 조광조를 비롯한 김식과 김정, 기준 등 기묘인들을 이끌었던 핵심 도학자들에 대한 신원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1541년(중종 36년)에 이런 논의를 제기한 인물이 모재였고¹²⁾, 김인후도 이 논의를 1543년(중종 38년)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 당시 중종과 함께 여는 경연에서는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경우 기묘년에 쫓겨난 인재들을 서용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기묘년의 일’은 여전히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조광조나 기묘인들의 신원과 관련해서는 더 더욱 제한하였다. 예외적으로 모재는 “기묘년에 죄받은 사람”임에도 “혐의를 피하지 않고 같은 무리들의 억울함을 씻어 주려는 건의”를 하였다. 사관은 “나라의 큰 일을 당하여 제 몸을 돌보지 않는 자”라 그를 평한다.¹³⁾

1543년 6월 부수찬에 오른 김인후는

9) 『別試策題』, 讀卷官大提學 金安國

10) 『中宗實錄』 권86, 중종 32년 정유(1537) 12월 15일(경신)

11) 『중종실록』 중종33년 무술(1538) 4월 12일. “전교하였다. 판중추부사 최숙생과 이장근, 우참찬 이자, 참판 유운, 관찰사 문근수, 지중추부사 김세필, 병사 유용근, 승지 윤자임과 박세희, 부제학 김구, 참의 이성동, 전한정응, 사인 최산두, 정랑 정완·이희만·송호지, 도사 노필, 좌랑 민회현, 현감 안우, 참봉 방귀온, 강녕 부정 이기, 중남 부수 이창수 등은 모두 직첩을 되돌려주라.”

12) 『중종실록』 중종36년 신축(1541) 4월 4일.

13) 『중종실록』 권95, 중종 36년 신축(1541) 4월 4일(경신)

검토관을 겸하면서 조강에 나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하였다.

근래 이를 데 없는 소인小人 [심정沈貞·이항李沆을 가리킨다.] 으로서 죽어도 죄가 남을 자는 다 복직復職되고, 한때 잘못된 일은 있더라도 그 본심은 나라를 속이지 않은 자 [조광조趙光祖·김식金湜·김정金淨·기준奇遵·윤자임尹自任·한충韓忠을 가리킨다.]는 상은上恩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상을 입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숭상하던 글 [소학小學·향약鄉約 등의 글을 가리킨다.]도 모두 폐기하고 쓰지 않으니, 매우 온편하지 못합니다.¹⁴⁾

김인후는 경연에서 여전히 기묘인들이 유폐되어 서용되지 못하고, 『소학』 교육과 ‘향약’ 시행이 사라진지도 오래되었다고 언급한다. 김인후와 모재,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년의 핵심 인물들의 신원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

는 여론을 환기하였다. 기묘년을 이끌었던 도학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은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유도될 문제는 아니었지만, 중종도 이들에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검토관 김인후의 발언을 계기로 경연에서는 『소학』을 비롯한리학의 강학과 위기지학의 학풍을 진작할 것을 건의하기에 이른다. 1544년 1월에는 중종이 “지금 풍습은 『삼강행실三綱行實』, 『이륜행실二倫行實』을 급하게 여기지 않으니 그 폐단이 크거니와, 『소학』의 나이에 따라 읽는 것은 작은 절목의 일이니, 심학을 앞세워야 마땅하다.”라고 언급한다.¹⁵⁾ 경연과 조정에서 조광조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그의 신원에 대한 요구가 1544년(중종 39년)부터는 성균관의 유생들 차원에서도 나타났다. 조광조와 김정 등 기묘인들에 대한 사면은 인종의 승하 직전인 1545년 6월 29일에 이루어진다.¹⁶⁾

그러나 인종의 사후 명종이 등극하

14) 『중종실록』 권101, 중종 38년 계묘(1543) 7월 20일(계해)

15) 『중종실록』 권101, 중종 39년 갑진(1544) 1월 26일(을축)

16) 『중종실록』 2권, 인종 1년 을사(1545) 6월 29일(경신)

면서 조광조의 신원 문제는 흐지부지 되고 만다. 이 문제는 선조 대에 이르러야 전라도의 도학자 기대승의 권의를 통해 도통 문제가 제기되고, 조광조의 증직¹⁷⁾과 문묘종사¹⁸⁾에 대한 새로운 논의로 전환된다. 김인후의 도학자로서 정치적 행보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가 ‘조광조와 기묘인’들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김인후를 호남 도학자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도학사의 지평으로 확장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인종의 죽음(1545년 7월 1일) 이후에 그가 보여주었던 행보에 있다. 김인후는 인종의 사후, 공적인 직위에서 물러나 전라도 순창과 장성에 은거하면서 도학과 문장 그리고 절의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도학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었다.¹⁹⁾

4. 하서의 인적 네트워크

김인후는 1528년(중종 23, 무자) 19세에 서울에 올라간 이후, 진사시에 입격한 이후 다시 성균관에 머물렀다. 김인후와 이황이 성균관에서 만난 것은 1533년(중종 28, 계사), 24살 때였다. 성균관에서 이황과 강학하며 지냈다. 김인후의 연보에 따르면, “당시 기묘사화를 겪은 나머지라 사기士氣가 저상하여 도학道學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했는데, 선생이 이황을 한번 보고 서로 깊이 뜻이 맞아 끊임없이 토론 탁마해서 매우 이택麗澤의 소득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이택’이란 태괘兌卦에 “군자 이붕우강습君子以朋友講習”라고 했는데, 붕우가 학습하는 락樂을 의미한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황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자 김인후는 시 한편을 써서 송별했다. 그 시에 “부자夫子는 영남의 빼어난 분이시라 이두李柱의 문장에 왕조王趙의 글씨로세.”라고 썼다.²⁰⁾

17) 『선조실록』 선조1년 무진(1568) 4월 3일.

18) 『宣祖實錄』 선조3년 경오(1570) 5월 9일.

19) 김경호, 『그리움의 분노- 하서 김인후의 통곡과 유소사』, 『한국인물사연구』 19, 한국인물사연구회, 2013.

20) 이황의 연보에는 ‘世宗 嘉靖 원년 (임오) [1522년, 퇴계 22세] 시기로 적었다. (계미) 23세 10월에 아들 雋이

김인후는 이황을 영남의 빼어난 인재라고 평가했고, 그의 문장은 이태백과 두보의 문장이고, 글씨는 왕희지와 조맹부의 서체라고 평했다.

이 당시 이황은 ‘퇴계’라는 호를 쓰지 않고 ‘지산芝山’이라 스스로를 칭했다. 그는 시문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당대의 명필名筆이기도 했다. 이황은 후에 경복궁 전각의 편액을 쓸 정도였다. 1554년 12월에는 「경복궁중수기景福宮重修記」도 지었다. 이황의 글씨가 궁궐의 편액에 걸리고 궁궐의 기문도 썼다는 것은 숙고해 볼 만한 지점이다. 당대 최고의 도학자가 기문을 짓고 만인이 바라보는 전각의 편액을 썼다는 것은 그 자체가 도학의 현창이기도 했다. 바로 이점에서 이황과 김인후의 유사점이 발견된다. 김인후도 당대의 명필이었다.

김인후는 1517년(중종 12, 정축) 8세 때, 전라도 관찰사 조원기를 만나서 시구를 나눈 적이 있었다. 조원기

는 어린 김인후를 칭찬하면서, 전錢, 곡穀, 필筆, 묵墨의 글자를 열서列書하여 보여주며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하였더니 김인후는 즉시 붓을 쥐고 “용동이 받고자 하는 것은 진현陳玄(먹)과 관성자管城子(붓)입니다”(용동육수진현관성자庸童欲受陳玄管城子)라 하였다. 어릴 적부터 문장뿐만 아니라 글씨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것이다. 이듬해 1518년(중종 13, 무인)에 복재服齋 기준奇遵이 김인후를 만나보고 “참으로 기특한 아이다 마땅히 우리 세자世子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사필內賜筆 한 자루를 선물로 주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기준과 김인후의 만남에 대해서 후학인 간이簡易 최립崔攄은 ‘붓’을 통해 두 사람의 사귀를 이렇게 읊었다.

김하서가 어려서 문재文才가 매우 뛰어났으므로 복재服齋 선생이 붓 한 자루를 선사하였다. 이

출생하다. ○ 이해에 선생이 처음으로 태학에 遊學하다. 이때는 己卯의 화를 거친 뒤였으므로 선비들의 풍습이 浮薄하여서, 선생의 법도 있는 행동거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비웃을 뿐이요, 서로 상종하는 이는 오직 河西 金麟厚 한 사람 뿐이었다. 얼마 안 되어 선생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서가 작별시를 지어 주었는데, “그대는 영남의 수재요, 李杜의 문장에 왕·조의 글씨라.”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것은 오류로 보인다. 김인후는 작별시의 서문[小序]에 “계사년(1533, 중종28) 가을에 西로 가서 泮宮에 들어갔다.”고 적었다.

에 그 붓을 상자 속에 잘 보관하
고는 자손들에게 전하였는데, 지
금 보아도 새 붓과 다름이 없다.
그가 알아줌을 받은 그날의 뜻을
되새기면서, 선생이 큰 화를 당한
뒤에도 어진 덕을 사모한 그 일이
일컬을 만하였고, 또 이를 통해서
복재 선생의 면모를 만분의 일이
나마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졌
기 때문에, 이렇게 시 한 수를 지
어 보았다.

공은 그 당시에 서른이 채 못
되었고/公未三十立
아홉 살 된 아이는 신동이라 불
렸지/童方九歲神
선생이 주신지라 붓도 따라서
빛났는데/貽榮管亦美
깜짝 놀랄 화를 당해 나라에 인
자가 없어졌네/禍駭國無仁
글재주 보이려고 어떻게 차마
꺼내 쓸까/穎脫忍充用
아껴 주신 기념으로 잘 보관해
야 하고말고/櫝藏存愛人
마침내는 하루하루 붓의 수명
이 늘어나서/遂令日計壽

이젠 세상에 전하는 진귀한 붓
이 되었구나/翻享世傳珍
짓밟고 부러뜨린다면 길고 짧
은 게 있으리요/輾毀非脩短
애지중지 보살피면 옛것도 바
로 새것이라/扶持豈故新
하찮은 붓을 소재로 대인의 모
습을 그리자니/如將微況大
너무도 슬프고 애석해서 더 이
상 못 읊겠네/愴惜更堪陳²¹⁾

기준이 전해준 ‘붓’을 간이 최립이
보았던 듯하다. 도학의 군자가 유년의
김인후를 만나서 도학의 의취를 뿌려
주고, 기준이 사화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 지향을 배웠던 김인후는 그것을 지
켜내려는 것, 그것이 사도斯道를 구성
해내는 역량이 된다.

김인후는 1541년에 호당에서 이황
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김인후는
32세 때인 1541년(중종 36, 신축) 4월
에 이황과 호당에서 사하독서賜暇讀書
를 하였고, 이때 13명이 ‘호당수계湖堂
修稷’라는 계회를 만들고 「호당수계록
湖堂修稷錄」을 남겼다. 성세창成世昌은
「湖堂修稷錄」에 계회의 일원들을 적었

21) 『簡易集』卷8, 「還朝錄」.

는데, 간재良齋 최연崔演 연지演之, 십성당十省堂 엄흔嚴昕 계소啓昭, 추파秋坡 송기수宋麒壽 태수台叟, 송재松齋 나세찬羅世纘 비승丕承, 국간菊圃 윤현尹鉉 자용子用, 죽계竹溪 임열任說 군우君遇, 지산芝山 이항李滉 경호景浩, 금호錦湖 임형수林亨秀 사수士遂, 우암寓庵 김도金濤 응림應霖, 상덕재尙德齋 정유길鄭惟吉 길원吉元, 급고재汲古齋 이홍남李洪男 사중士重, 호학재好學齋 민기閔箕 경열景說 그리고 담재湛齋 김인후金麟厚 후지厚之가 인물이었다. 이 호당수계에서 조선도학을 대표하는 문묘종사자 두 명이 나왔다. ‘퇴계(지산)’와 ‘하서(담재)’이다. 그리고 역모의 고변자도 나왔다.²²⁾

지역의 관점에서 1세대 호남도학의 한 흐름을 만들었던 양산보의 인적 네트워크는 2세대 도학자인 김인후를 통해 정읍의 일재一齋 이항李恒(1499~1575)과 창평의 유희춘과 연결되고, 3세대 도학자인 기대승과도 연계된다. 이외에도 3세대 도학자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학자적 관

료였던 광주의 재봉霽峯 고경명高敬命(1533~1592)이나 창평의 송강松江 정철鄭澈(1536~1593)은 혼맥으로 연결되고, 서하당棲霞堂 김성원金成遠(1525~1597)과 의병장 김덕령金德齡(1567~1596)은 광산김씨의 일족이었다.

소쇄옹瀟灑翁 양산보梁山甫의 소쇄원이 특별히 호남 도학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 것은, 그 공간이 단순히 개인적인 ‘별서別墅’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도학에 대한 자긍심과 의취를 재고할 수 있는 학술과 도덕의 공간이자 문학의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이 공간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호남 도학의 열린 공간으로 기능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역 사족들에게 소쇄원이 도학의 한 모범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의 제2세대 도학자로 성장한 하서가 기여한 바도 컸다. 당시 지역을 대표했던 도학자로서의 하서는 양산보의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효孝’의 공감장으로써 소쇄원을 구성했다. 김

22) 1549년(명종4) 尹任의 사위 李洪胤은 부친 李若氷이 양재역역서 사건에 연루되어 사사되자 불만을 표했고, 형 李洪男이 동생을 고변하여 역모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주로 충주에 거주했고, 충주는 逆鄉이 되어 維新縣으로 강등되었다. 『明宗實錄』 4年 4月 18日.

인후는 ‘효행의 모범’으로 알려진 양산보의 아들이었던 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1523~1594)의 스승이자 장인이었다.

김인후는 10세 무렵에 전라도 관찰사였던 김안국金安國에게 나가『소학』을 배웠고²³⁾, 지역의 명사였던 눌재訥齋 박상朴祥과 면앙정旼仰亭 송순宋純에게 사사 받기도 했다. 담양의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과 교유하면서 동북에 유배된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를 찾아가 도학을 학습했다. 김인후는 특히 문장이 뛰어나 일찍부터 전라도 관찰사였던 조광조의 숙부 조원기趙元紀(1457~1533)나 기준 등과 같은 명망가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그의 문학방면의 재능은 무자년(1528) 성균관 백일장에서도 확인되는데, ‘칠석부七夕賦’²⁴⁾로 장원을 차지하여 우의정을 겸임하던 홍문관 대제학 이행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다.²⁵⁾

김인후와 함께 1540년대를 전후하

여 호남 도학을 이끈 2세대 도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유희춘이다. 유희춘은 전라도 도학의 핵심인물들과 혼맥과 학맥으로 연결되는 가계에서 태어났다. 그는 전라도 도학의 선하를 이루는 외할아버지 최부崔溥(1454~1504)로부터 아버지 유계린으로 이어지는 가계에서 장형 유성춘과 기묘인들의 도학적 의취를 직접 보고 배우면서 자랐다. 그리고 유희춘의 처가도 조선 도학의 연원에 닿아 있었다. 경상도 지역의 도학을 이끌었던 김종직 계열의 도학 사상은 혼맥을 통해 유희춘의 처가쪽으로도 연결되었다.²⁶⁾

유희춘의 가계는 호남 도학이 태동하고 성장하는 시기에 본가뿐만 아니라 처가도 도학 계열의 자장 안에 놓이게 되었다. 유희춘은 지역에서 김인후와 교유하였고, 광양의 신재 최산두와 모재 김안국에게 수학하며 당대의 도학을 익혔다.²⁷⁾ 1537년(중종 32년)에는 생원시에 입격(25세)하

23) 『河西集』附錄 卷3, 「年譜」(10세).

24) 『河西集』卷1, 「七夕賦」.

25) 『河西集』附錄 卷3, 「年譜」(19세).

26) 김경호, 「미암 유희춘의 가족서사와 도학의 재발견」, 『유학연구』 54, 유학연구소, 2021.

27) 『眉巖集』卷3, 「慕齋先生集序」.

고, 1538년(중종 33년)에는 별시문과에 급제(26세)하여 출사했다. 별시에 서 유희춘을 발탁한 시험관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이다.²⁸⁾ 이언적은 이황이 존경할 만큼 리학理學에 조예가 깊었고 조선사회에 ‘도학적 심학心學’의 토대를 마련했던 도학자였다.²⁹⁾

을사사화 이후, 도학자들과 사림계열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면서 유희춘은 1547년(명종 2년) 9월에 일어난 양재역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를 거쳐 변방의 종성으로 유배되었다. 그 후 1565년(명종 20년) 12월 초에는 내륙의 은진현으로 이배되었고, 2년 후에는 해배되어 정계에 복귀했다. 그 19여 년의 유배 기간 동안 유희춘은 ‘도학으로서의 주자학’에 골몰하고 이를 체험적으로 익히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유희춘은 김인후 사후에 전라도 도학을 이끄는 제3세대 도학자인 기대승과 함께 1560년대 후반을 이끌

면서 1570년대 성학의 시대를 주도했다.

호남 도학의 발전 과정은 혼맥의 형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전개되었다. 호남 도학을 이끌었던 2세대의 대표적인 도학자였던 김인후와 유희춘은 삶과 죽음의 고비에서 도의지교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³⁰⁾ 혼맥으로 연결된다. 이들은 도의를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자식들의 혼사를 통해 지속하면서 학술과 혼맥이 연계된 전라도 도학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었다.

김인후의 딸이 유희춘의 아들인 유경림과 혼인하여 두 집안은 전라도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혼인을 통한 혼맥의 관계망은 ‘김인후-유희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유력한 도학자 가문과 혼맥을 형성하게 되었다. 혼맥으로 구성된 신뢰의 관계망은 지역 내에서 넓게 확산되었다. 김인후는 자녀와

28) 『眉巖集』卷20, 「諡狀」(李好閔 撰).

29) 김경호, 「회재 이언적의 도학적 삶과 학술사상」, 『울곡학연구』 40, 울곡학회, 2019.

30) 이호민이 쓴 시장에는 생원 신분이었던 김인후가 반궁(성균관)에서 공부할 무렵 갑자기 병이 났었는데 성균관의 종9품 학유로 있던 유희춘이 간병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인후가 생원이었다는 것은 오류다. 김인후는 진사시에 합격했다. 『眉巖集』卷20, 「諡狀」(李好閔 撰). “金河西麟厚, 同門友也° 以生員在泮, 染時疾, 人莫敢視, 幾至死域, 公時爲學諭, 聞之, 亟輿歸所寓, 躬調湯藥, 日夜看護, 河西賴以起, 而終身感焉°”

손자의 혼사를 통해 당대 조선 도학을 이끌었던 전라도 태인의 일재 이항, 전라도 담양의 양산보, 전라도 담양해남의 유희춘, 전라도 광주의 기대승 등 지역의 도학자들과 인적 관계망을 구성하였다. 이 혼맥의 관계망은 ‘같은 면서도 다른’ 학적 관계망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다르면서도 동질적인 연대의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5. 하서와 소쇄원의 효 공감장, 소쇄원

기묘사회로 스승과 동료 선배를 잃은 양산보는 자연을 벗 삼고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는 것으로 자신의 배움과 실천을 증명한다. 그는 모든 행위의 근본은 ‘효’에서부터 비롯한다는 유교적 가르침을 실천궁행하는 것을 공부의 처음과 끝으로 놓고 있다. 성리학이 추구하는 도학은 사람다움의 도

리, 곧 효에서부터 비롯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양산보는 항상 “사람의 도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서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자를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³¹⁾라고 아들인 양자징에게 가르쳤다.

출사하지 않고 처사적 삶을 통해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자신의 분노와 우울을 달래가는 그의 일상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월근의 명사들은 소쇄원을 내방하여 양산보와 도의를 논하게 된다.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김인후였다. 양산보와 사촌동서사이인 울산김씨 김백균金百鈞을 통해 인맥을 형성하고 있던 김인후는 소쇄원을 찾아 은일과 소요의 흥취를 완상하던 차였지만, 인종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웠다.³²⁾ 그럴 때마다 김인후는 소쇄원을 찾는다.³³⁾ 소쇄원 주인의 아들이 김인후의 사위

31) 『西河集』卷16. 「瀟灑園梁公行狀」, “常謂人道莫大於孝, 而爲人子者不能其所當爲.”

32) 김인후의 인종에 대한 통곡과 울분은 「유소사」에 극진하게 드러난다. 김정호, 「그리움의 분노: 김인후의 통곡」, 『감성의 유학』,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150-154쪽.

33) 김인후는 온전하지 못한 인종의 죽음에 대한 통탄으로 분노와 슬픔의 격정에 휩싸이는데, 그러한 심정은 조광조의 죽음에 대한 양산보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격정의 자연 치유 공간이 소쇄원이기도 하였다. 소쇄원의 풍광을 읊은 ‘마흔 여덟 개의 노래’는 그러한 사례의 하나다. 『西河集』卷5. 「瀟灑

인 양자징이다.

김인후와 양산보가 자연공간에서 은일과 소요의 자적인 삶을 향유하면서도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실천적 주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출사하지 않고 향리에 머물며 성리학적 가치 규범을 일상 속에서 내면화하는 ‘효’의 실천이다. 소쇄원은 효라는 감성을 구체화 하고 서로 나누는 유가적 공감장이었다. 양산보의 많지 않은 글 가운데 하나가 ‘효에 관한 부賦’이다. 이 글은 『하서집』에 실려 있다.

아득한 천지 사이/지리至理는
두루 흘러/하물며 사람치고/본本
을 찾지 않을까./제 몸이 중하다
면/제 어디서 나왔으며/천금의
눈과 얼굴/어디서 이루어졌나./
아! 아버지 어머니가/실로 나를
낳으셨네./노고도 그지없고/사랑
도 그지없네³⁴⁾

김인후는 이 부에 차운하여 ‘효부孝賦’를 지어 화답한다.

자애慈愛의 은택이 하도나 넓
어/내 한 몸에 함초름 젖어 들었
네./생각하고 생각한들 어찌 다
하며/말하고 또 말한들 이 어찌
끝나리까/… 때 마침 빛은 술이
익었거들랑/단란한 기쁜 자리 이
바지하세./숙수菽水 비록 넉넉하
진 못할지라도/산야山野의 한가
로운 여흥 있으니/층층진 산 술
을 마주 대하며/만 그루 동산 대
를 어루만지며./여기서 노래하
고 여기서 즐기고/만년을 받들면
서 소요합시다./꼭 밖엿 것 기다
려 봉양을 하자면/종신토록 이루
지 못할 수도 있으리니./삶은 나
의 순順이라면 죽음은 나의 편안/
전전궁궁 더욱더 정녕히 하자꾸
나.³⁵⁾

양산보의 ‘효’에 대한 감성을 잘 보여주는 이 「효부孝賦」는 1552년, 그의 나이 49세의 저작이다. 김인후는 이 글에 화답하여 「효부차운孝賦次韻」을

園四十八詠」

34) 『河西集』 「孝賦」

35) 『河西集』 「孝賦次韻」

짓는다.³⁶⁾ 양산보와 김인후가 화답한 「효부」에 대하여 송순宋純은 “공(김인후)은 양군과 오랜 친구사이로 더욱이 두 자녀가 혼인을 하여 서로 정으로 친하고, 서로 덕으로 존경하여 왔다. 두 공의 창화倡和는 모두가 이룬의 아름다운 일일뿐더러, 학업을 서로 믿고 가법으로 전한 면을 내가 두 공에서 취하여 경의를 드린다.”³⁷⁾는 발문을 짓는다. 일종의 논평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발문을 쓴 송순은 당시 호남의 명유로 지역의 학술과 문예를 주도하던 인물이다. 그는 양산보와 이종사촌이다.

김인후가 양산보의 「효부」에 차운한 것은 두 사람이 사돈 간이면서도 도의 지교를 나누던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리학적 실천윤리의 첫 번째인 ‘효의 실천’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유학의 도학적 성취는 곧 효의 실천에 있다는 것이 그들이 공감했던 감

성의 지점이다. 김인후가 1543년에 중앙의 관직을 마다하고 부모의 봉양을 위해 ‘옥과현감’으로 나간 것이나, 인종 승하 후 일체의 학술활동을 전폐하면서도 『효경간오孝經刊謬』의 발문을 짓는 것도 그의 ‘효’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엿보게 한다.

자연 치유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효행의 공간이었기에 소쇄원 경영에는 김인후나 송순뿐만 아니라 인근의 명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³⁸⁾ 여기에는 광산김씨 가문의 인물들도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양산보의 처가 광산김씨光山金氏 김후金珣의 딸이기 때문이다. 김후는 『주자문록』출간(1557)에 일조하는 환벽정環碧亭의 주인 김윤제金允梯(1501~1572)의 아버지이다.

김윤제의 손녀사위가 정철鄭澈(1536~1593)이기 때문에 그도 소쇄원의 인맥 속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양자징과 사촌이자 서하당의 주인인 光山金氏 김

36) 양산보와 김인후의 「효부」에 대한 내용분석과 비교는 다음을 참조하라. 한예원, 「양산보의 〈효부〉와 〈소학〉 정신에 관하여」, 『한문교육연구』 Vol.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479~481쪽.

37) 『俛仰集』卷3, 「拔金厚之次梁彦鎮孝賦韻」.

38) 소쇄원의 초기 경영에는 송순의 지원이 컸다. 양산보의 어머니 신평송씨가 송순의 고모이다. 이런 가계의 연결 고리를 갖고 있는 송순은 어린 사촌동생이 조광조의 죽음에 낙망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별서를 짓게 되자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그것이 소쇄원의 공간으로 조형되는 것이다.

성원金成遠(1525~1597), 김후의 손녀사위인 송정황, 이들과 인척을 맺고 있는 고경명高敬命(1533~1592), 김성원의 스승이자 식영정 주인 선산임씨善山林氏 임억령 등도 소쇄원에 출입하며 공감의 접점을 형성한다.

고경명의 경우에는 울산김씨 김백균과 광산김씨에서 태어난 딸의 남편으로 담양-창평의 재지사족의 핵심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 그가 아버지 고맹영高孟英과 함께 이량의 당인으로 지목되어 실각하여³⁹⁾ 광주 압보촌鴨保村에 은거하였음에도 지역에서 유력한 인사들과 교유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학문적 역량뿐만 아니라 이러한 혼맥으로 이루어진 인맥의 영향이 크다.

이 효의 가르침은 대를 이어 소쇄원의 공간을 채워간다. 양산보를 잇는 양자징이 사관祠官에 임명되었다가 거창현감居昌縣監으로 벼슬에 나가게 되는 것도 그의 효행이 알려져 ‘효자’로 천거되었기 때문이다. 양자징을 이어

소쇄원을 경영하는 양천운梁千運의 경우, 『소학』과 『삼강행실』 등의 책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집안은 효도로 전해와 본래 토지의 문권이 없으니, 너희들은 각자 공경하고 삼가서 너를 낳아주신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⁴⁰⁾고 경계하는 대목은 유교적 실천의 핵심도리인 효와 그 효를 행도行道 첫 번째로 삼는 ‘소학적 실천공간’으로 소쇄원이 기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소쇄원은 당대 장성-담양-창평-광주 인근의 인물들이 출입하는 ‘생성되어 가는 은일과 자적의 공간’이자 ‘효’를 내면화 하고, 실천하는 감성 공간이었던 셈이다.

6. 삶의 진정성으로서의 하서도학

김인후는 ‘마땅함’은 그의 출처관과 도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리학적 탐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정성스

39) 이량 당인들에 의한 국정농단에 저항했던 인물이 기대승이다. 기대승과 동향이었던 고경명은 이 당화 아버지 고맹영과 연루되어 삭탈관직되 18여 년간 광주에서 은거한다. 그의 재출사는 김계휘와 이이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김경호, 『불온한 공감-존재의 사유, 너머』, 『한국철학논집』 Vol. 5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7. 참조.

40) 『陶谷集』卷16, 『司憲府監察梁公墓誌銘』, “公仍戒子姪曰, 吾家以孝相傳, 本無文券, 爾等各自祇飭, 無忝所生, 以小學三綱行實等書, 訓誨子女.”

러운 태도로 연결된다. 그래서 김인후의 학술은 진실하고 올바른 행의와 다르지 않고 효제충신의 태도와도 다르지 않다.

1550년대 후반에 전라도 도학에서는 조선 유학사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성리학의 태극음양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리기심성에 관한 주제였다. 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도학을 추구했던 장성 순창의 김인후와 태인의 이항 그리고 광주의 기대승이 태극음양 문제에 대해 토론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 토론은 기대승에 의해 1560년 초에 사단 칠정에 관한 논의와 연결되면서 조선 성리학의 이론적 심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마디로 1550년대에 전라도 도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던 리학에 대한 학술적 토론을 통해 1560년대 이후 조선유학의 학술 역량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놓였던 셈이다.

이와 같은 리학에 대한 논의는 단지 ‘이론을 위한 이론 구축’이 아니다. 인간과 우주 자연의 본질에 대해 바른 관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한마디로 사적인 측면에서 자의적으로 해

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론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론과 지향점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 학술토론이었던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학의 논의에서 ‘리학의 학술에 정통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항은 특별히 ‘리학의 학술’에 대해 강조했고, 그것이 도학의 모범적인 모델인 문묘종사의 핵심 논거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리학에 대한 학술적 탐구는 결국 ‘바른 본성’ ‘정당한 행위’ ‘보편적 선’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한 노력은 보다 구체적인 삶의 일상 속에서, 삶-정치적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곧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인후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성스럽게 대하고 실천했다. 그것이 인종과의 수어지계(水魚之契)와 같은 관계성이다.

매년 인종의 기일(7월 1일)에 전라도 장성의 난산에 올라가 통곡과 통음을 했고, 인근의 담양 소재원을 찾아 양산보와 함께 시를 읊으며 도학과 효의 표본을 만들었으며, 말년에는 순창 훈몽재에서 성리철학에 대해 담론했다.

김인후는 죽은 인종에 대한 연민과 분노를 마치 떠나간 님을 그리워하듯 표현한 두 편의 글을 남겼다. 「유소사有所思」⁴¹⁾와 「조신생사弔申生辭」⁴²⁾가 그것이다. 「유소사」와 「조신생사」는 한마디로 ‘그리움의 애사’라고 할 수 있는데 불의함에 대한 분노였고, 양산보와 공감한 효행의 실천은 삶의 근간에 대한 감성적 연대였다. 이러한 실천은 강학과 성리학 탐구를 통한 저술 작업으로 이어진 천리天理의 일상화였다.

인종과 김인후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정인情人과도 같은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은 그림과 글씨에서 취향이 통했고, 시적 감수성도 비슷했던 듯하다. 그래서 서로를 허여하고 서로 믿으며 상호존중과 정성을 다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김인후가 인종의 사후에 짓게 되는 ‘유소사’가 그러한 사례이다. 이러한 관계는 일종의 사랑의 관계이다. 이렇듯 흠모하는 대상이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종의 갑작스런 죽음은 김인후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다.

김인후는 세자시강 시절(1543)에 세자 이호李岵(1515~1545)와 만났다. 후대에 정조는 이 과정을 「문묘종사반교문文廟從祀頒教文」(예문제학藝文提學 구상具庠 제製에서는 “서연離筵의 출입은 이미 동궁東宮에서부터 지우知遇를 받았으며, 은총의 거룩함은 묵죽墨竹을 그려주어 뜻을 붙이였다. 어수魚水의 긴밀한 결합은 다행히 그 사람이 있을진대, 보불黼黻 협찬의 아름다움은 장차 당세에 보겠더니. 어찌 뜻했으랴 하늘이 돌봐주지 아니하여, 마침내 하읍下邑으로부터 영영 돌아가고 말았구려. 칠월이라 궁산에 몇번이나 창오蒼梧의 원통한 눈물을 뿌렸던고, 한 조각 붉은 명정에는 옥과玉果의 옛 직함을 고치지 않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어수밀물지계魚水密勿之契”로 표현하였다. 인종과 김인후가 ‘魚水密勿之契’ 즉 ‘어수지계魚水之契’를 맺게 되었다는 것은 ‘물고기와 물’의 친연성처럼 그 둘의 관계가 매우 친밀했음을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41) 『河西全集』卷3, 「有所思」, “君年方向立, 我年欲三紀. 新歡未渠央, 一別如絃矢. 我心不可轉, 世事東流水. 盛年失偕老, 目昏衰髮齒. 泯泯幾春秋, 至今猶未死. 柏舟在中河, 南山薇作止. 却羨周王妃, 生離歌卷耳.”

42) 『河西集』卷1, 「弔申生辭」.

사람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水魚之
 交’라 표현되는데 이 표현을 굳이 쓰지
 않고 ‘어수지계’라고 쓴 이유는 ‘군신관
 계’라는 또 다른 층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어수’와 ‘지계’ 사이에 있는
 ‘밀물密勿’은 바로 신하로서 임금과 가
 까운 거리에 있는 지위를 이르는 말이
 다.

이런 관계가 인종의 죽음으로 인해
 파탄 나게 되었으니, 그 파경破鏡의 고
 통은 김인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비
 탄이었다. 김인후는 삶의 방향성을 잃
 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갈 길을 잃어버린, 가야할 경로를 잃
 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인종을 잃
 은 김인후의 상실감은 때론 슬픔으로,
 때론 분노로, 때론 절망으로 그를 몰
 아세웠다.

인종의 죽음으로 인해 김인후는 자
 신이 가야할 길을 잃었다. 그는 자신
 이 가야할 길이라고 믿었던 도학의 이
 상, 그리고 함께 가리라고 믿었던 ‘님’
 을 잃어버림으로써, 어떤 길로 가야할
 지 방향을 잃고 말았다. 삶의 목적지
 나 지향을 잃은 것과 다르지 않다. 인
 종의 죽음은 그를 더 이상 현실 정치
 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 김인후

는 인종과 더불어 그의 앞 세대 정권
 에서 자행되었던 잔혹한 정치적 폭거
 를, 기묘사화와 같은 부정의한 폭력을
 합리적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그것이 그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였다. 그러한 가치를 다른 말로
 도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도학은
 지치주의 이상을 현실정치를 통해 구
 현해 내는 것이다. 그러한 이상 정치
 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던 군주가 하
 루아침에 세상을 하직하고 만 것이니,
 김인후로서는 당연히 갈 길을, 목적지
 를 상실하게 된다.

인종의 죽음에 대한 김인후의 통곡
 과 통음, 그리고 출사의 거부는 기존
 의 ‘의리’라는 도덕적 관점과는 다른
 방향에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김인후
 가 인종의 사후 보여주었던 일련의 행
 위들을 의리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정투쟁’이라는 층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정투쟁은 당연히
 타자에게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내면적
 승인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적극적인, 목숨을 건 투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인정투쟁은
 곧 적에 대한 분노를 통한 자신의 정

당성을 찾아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김인후의 행위는 상실과 슬픔을 넘어서 의리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분노의 과정으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후의 행위에 대해서 적들은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김인후가 제기했던 분노-이를테면, 통곡, 통음, 출사거부의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재가 가해졌다면, 적어도 형식적인 도덕성이라도 유지하고자 했던 명종대의 수렴청정, 곧 문정왕후에 의해 수행된 명종 정권은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김인후’는 난산의 공간에서 일종의 의식적이고 의례적 행위를 통해 자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한다. 통곡과 통음은 경모하던 사람을 잃은 고통과 슬픔에서 비롯된 분노와 저항이면서도 ‘애도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행위는 김인후가 스스로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다. ‘인간 김인후’와 ‘사회적 김인후’의 긴장 관계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승인하는 자기인정 투쟁과 다르지 않다. 김인후의 통곡 통음 그리고 출사거부는 ‘정치적 저항 행위’이자 부도덕한 권력에 대한 ‘서사화된 윤리

적 실천투쟁’이다.

〈참고문헌〉

『陶谷集』

『河西全集』

『俛仰集』

『眉巖集』

『明宗實錄』

『簡易集』

『宣祖實錄』

『中宗實錄』

『高峯全書』

『正祖實錄』

『宋子大全』

김경호, 「그리움의 분노: 김인후의 통곡」, 『감성의 유학』,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김경호, 「회재 이언적의 도학적 삶과 학술사상」, 『울곡학연구』 40, 울곡학회, 2019.

김경호, 「미암 윤희춘의 가족서사와 도학의 재발견」, 『유학연구』 54, 유학연구소, 2021.

김경호, 「그리움의 분노- 하서 김인후의 통곡과 유사」, 『한국인물사연구』 19, 한국인물사연구회, 2013.

피터 K. 볼, 심의용 옮김, 『중국 지식인들과 정체성 - 사문을 통해 본 당송 시대 지성사의 대변화』, 서울: 북스토리, 2008; This Culture of Ours: Intellectual Transitions in Tang and Sung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1992).

김경호, 「불온한 공감-존재의 사유, 너머」, 『한국철학논집』 Vol. 5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7.

한예원, 「양산보의 〈효부〉와 〈소학〉 정신에 관하여」, 『한문교육연구』 Vol. 31,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하서 김인후의 敬 사상

김기현(전북대 명예교수)

하서는 그 대답을 敬에서 찾았다. 그는 ‘대책對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요 마음으로 하여금 몸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敬입니다. 일은 이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치는 마음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敬은 마음을 지키고 이치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의 처음부터 성현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敬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는 또 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敬이란 사려를 안정시키고 정신을 수렴하여 도덕성을 함양하는 도리입니다.”

사려의 안정과 정신의 수렴이란 일상의 산만하고 나태한 마음을 거두어 심기心氣를 오롯하게 갖는 것을 뜻한

다. 마음은 여기에서 세계의 중심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산만하고 나태한 마음이 사물들의 주변을 떠돌면서 그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오롯한 마음은 사물에 흔들리거나 부침함이 없이 자신을 세계의 한가운데에 고요히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사물과 세계는 이에서 비로소 그 진실된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사람들의 순수한 자기와의 만남도 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서河西가 敬을 학문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강조해 마지않았던 것도 이러한 인식에 근거한다.

敬을 통한 도덕성의 함양은 단순히 도덕성의 내면적 자각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잠재적인 도덕성을 현실화하여 우주만물의 본질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까지 그 효과를 뻗친다.

왜냐하면 “온갖 이치 마음속에 밝게
 밝게 있으니 항상 마음 살려”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또 실현하려는 의지
 를 그것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사사로운 욕망의 티끌로 인하여 사물
 을 왜곡되게 바라보던 마음은 이로써
 그 본래의 광명을 되찾아 만사만물에
 대공지정大公至正하게 임한다. 이러한
 본심의 회복은 인식론적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저 회복된 본심은 자
 신을 이 세계의 한가운데에 세워 만물

을 포용하여 그들의 생성을 돕는 실천
 지향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될 것
 이다. 명징明澄한 인식은 실천에서 그
 완성을 구하는 법이다. 그리하여 “경敬
 에 근본하면 마침내 천하의 화평을 이
 루리라.” 요컨대 하서河西에게 있어서
 마음공부는 사물의 공명정대한 인식
 과 처사에 더하여 세계의 완성을 준비
 하는 것이었다.

—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1집,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절의정신」 74~75쪽에서

문광 스님, 유교 중용의 미발이발론, 중화사상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 불교 고승이자 대선지식 탄허 스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말씀이 있다.

“성현지학聖賢之學은 심성이이心性而
르다. 모든 성인 현자의 학문은 마음心
과 성품性 둘 뿐이다.”

이 구절에 담긴 의미처럼 동서고금
유-불-도 3교가 만나는 변치 않는 진
리의 한 지점에 ‘마음’과 ‘성품’이 있다.

이 땅의 모든 성인 현자들은 마음과
성품의 현실적 수양 문제에 대해 끊임
없이 의문을 품고 고민하고 논의해 왔
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수불이性修
不二, 성품과 수양은 둘이 아니라는 이
표현처럼 마음의 구체적인 실천과 수
행用心의 문제는 동 양철학의 핵심 주
제이자 인류의 영원한 과제이기도 하

다. 유교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의 하
나인 중용中庸에는 마음과 관 련해 미
발未發과 이발已發과 중화中和를 말한
다.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미발의
마음인 중中和과 희로애락이 일어났더라
도 이발已發 절도에 맞는 상태로 돌아
오는 마음和在이 중용의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발 공부와 이발 공부를 병행
해야 한다는 게 주자朱子 심학心學의
핵심이다. 불교의 경우는 어떨까. 미
발과 이발과 중화의 문제는 ‘결국 인간
에겐 마음 닦는 공부밖에는 없다’는 일
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맥락에 가 닿는
다.

물론 차이도 있다. 심과 성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수양의 문제에 있어서
도 그렇다. 그럼 우리나라와 중국을
대표하는 고 승, 네 선사들은 유교 중

용에 대해 무엇이라 이야기했을까?

이 책에서 고찰의 대상이 되는 네 선사는 중국의 명말 사대사 라 일컬어지는 감산 덕청 선사와 우익 지옥 선사, 한국의 근현 대 대표 고승인 퇴옹 성철 선사와 탄허택성 선사이다. 재미있는 것은 네 선사의 중화에 대한 담론이 각각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각각의 특성을 ‘중화일관론中和一貫論’, ‘유맥귀불론儒脈歸佛論’, ‘철徹적 가풍’, ‘탄呑적 가 풍’이라 명명한다.

이 책에 펼쳐지는 논의의 핵심은 결국 ‘인간의 마음心’에 있다. 인간 마음의 본체體와 사용用, 그리고 마음의 수련修心의 문제를 전면에 걸쳐 유가에 서의 마음에 대한 파악과 수신修身 문제, 그리고 불가에서의 마음에 대한 인식과 수련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그간의 유-불 관계 논의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각 가의 공통분모와 분화 지점을 명징하게 볼 수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동서와 고금을 회통會通하여 보기 위한 새로운 안목을 키우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동서고금 유교와 불교가 만날 수밖에 없는 진리의 ‘한 지점’을 향한 발로인 것이다.

…… 미발의 극처極處에, 중中の 심처深處에 성性の 묘처妙處에 무극無極의 오처奧處에 그 밀지가 함장되어 있다. 만약 이 번 생 안에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찾지 못한다면 내 살림은 한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석가, 공자, 예수의 종노릇만 하다가 다음 생을 다시 기약해야 할 것이다.

— 문광 스님의 『한국과 중국 선사들의 유교 중화 담론』 본문 중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보면서, 인촌 김성수金性洙도 다시 보아야!

주대환(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이 개발도상국들이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였다고 한다. 남한과 북한의 극명한 대비로써 그들의 이론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바보야, 문제는 정치政治야!”라는 말로 그들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제도와 정치 체제가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성을 결정하고 한계 짓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다보면 혹시 인류가, 아니면 역사의 간지奸智가 일부러 실험을 하기 위해서 남북한을 갈라놓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가져온 정치 체제, 즉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의회민주주의, 삼권 분립 등을 핵심 요소로 하는 한국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 뿌리를 찾다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류, 큰 줄기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다른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서, 근대 부르주아지와 인텔리겐차의 존재라는 사회 경제적 기초 위에 발전한 사상과 사회 운동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부르주아지가 없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모두가 황제가 되는 나라, 민주공화국을 세워서 천년의 숙명, 중화제국의 번속국藩屬國에서 벗어나서 독립하자”는 비전을 처음 나누어 갖게 된 만민공동회 이래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큰 줄기는 잡혔다. 그러나 이승만, 안창호 등이 모두 해외로 망명하고 나서 국내에서 이 흐름을 계승하여 3.1운도에 이어 기초를 다져간

분들이 있었다.

이들의 중심에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사려 깊고 헌신적이며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였다. 아직 해외 시장에 내놓아서 돈이 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 호남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수출하여 만든 자본을 종자돈으로 중앙학교를 인수하고, 경성방직을 세우고, 동아일보를 창간하였다.

대지주가, 큰 부자의 아들이 김성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중심이 되어 산업과 언론과 교육 전 분야에서 전근대 지주는 근대 부르주아지로 변신해 나가면서, 식민 치하에서이지만 근대 시민을 형성해 나갔고, 이들이 바로 해방을 맞이하여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핵심 역량이 된다. 미군정도 실상은 인촌이 이끄는 한민당이 운영하였다.

인촌의 사람 유진오가 헌법을 기초하고, 내각책임제로 되어 있던 초안을 이승만 박사가 거부하자 급히 인촌사랑방에 모여서 역시 한민당의 중진이자 인촌의 측근인 김준연이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 절충안을 만든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다. 인촌의 사랑방은 미군정 시절의 각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헌법기초안을 검토한 대한민국의 산실(産室)이었다.

그래서 인촌은 한사코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한민당의 대표도 하고, 부통령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또 인촌이 서거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몸소 문상을 하고, 장문의 간곡한 추도사를 발표하고 국민장으로 예우를 하였던 것이다. 이승만은 추도사에서 “내가 하와이에 있을 때부터 김 공과 고인이 된 송진우, 장덕수와 친분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인촌 그룹의 대변인으로 볼 수 있는 고하 송진우는 이미 1925년에 “앞으로 4~5년 지나지 않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세계적 풍운’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장차 조선 문제가 미국과 일본의 충돌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조선과 미국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인촌 그룹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인식으로 그들은 인내하고 실력을 키워나갔다. 결국 그들이 한 일은 국민 형성, 근대 시민의 형성이었다. 그래서 혹자는 일제 치하에서 동

아일보를 ‘또 하나의 정부’라고 불렀던 것이다.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장 서상일은 ‘대구의 프린스’라고 불릴 만큼 지지기반이 탄탄하였지만, 그의 가장 큰 경력은 동아일보 대구지국장이라는 사실이 말해주지 않는가?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인촌 그룹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국 그들이 만든 나라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사상의 경향이 근저에 깔려 있다. 심지어 우리는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른다. 인식의 오류, 그 밑에 있는 것은 야만인이라 얕잡아보던 일본인들에게 식민 지배를 당한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유아적 심리이다.

그래서 총을 들고 거리에서 활극을 벌여서 일본 경찰을 다 죽이는 만화 같은 영화를 좋아한다. 이제는 성인

인이 되어야 한다. 성공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배은망덕(背恩忘德)이나 환부역조(換父易祖)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패류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성공한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가? 먼저 후손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누가 세운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마침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볼 때, 우리는 독립운동의 역사,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아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심모원려(深謨遠慮)의 지도자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를 다시 보아야 한다.

『인촌탐사 김성수』

이진강, 황호택 | 372쪽 | 24,000원 | 나남출판사



책 소개글

『인촌탐사: 밝은 길을 찾아가다』는 탐사의 형식을 빌려 인촌 김성수의 흔적을 쫓아 그의 삶을 복원한 책이다. 인촌이 태어난 고창의 생가, 도쿄 유학 시절을 보낸 하숙집을 거쳐 그의

묘소에 이르기까지 인촌의 발자취가 남은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찾았다. 저자들은 일생 동안 이룬 공적에 비해 세상에 덜 알려진 데다 일부 사실은 잘못 알려진 인촌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적절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일제 강점기에 인촌은 민족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에 힘쓰고, 민족 자본을 세우려고 애쓰고, 조선 민중을 위한 언론을 창간했다. 해방 후에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일제 하에서도 어렵게 설립한 보성전문(현 고려대)과 지주인 그가 선공후사로 나선 덕에 이룰 수 있었던 농지 개혁은 인적자본 형성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저자들은 인촌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촌의 삶을 차근차근

탐사하고, 전 생애에 걸쳐 그가 이룬 다양한 성취와 진면목을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법조계, 언론계 원로가 직접 읽고 듣고 본 인촌 김성수의 생애사

『인촌탐사: 밝은 길을 찾아가다』의 저자들은 평생 법조인과 언론인으로 일하며 쌓은 내공과 경륜을 살려 집필했다. 인촌의 흔적이 남은 장소를 찾아 직접 촬영한 사진자료를 풍성하게 담아 독자가 직접 함께 탐사에 동행한 것처럼 느끼게끔 한다.

인촌은 호남 최고의 만석꾼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홀로 편안히 사는 삶을 추구하는 대신 나라를 위해 애썼다. 일제 강점기에 중앙학교, 보성전문 등 학교를 운영해 교육으로 민족의 역량을 키우고자 했다. 또 민족자본으로 경성방직을 운영하여 사업으로 나라를 일으키려 했고, 동아일보를 창간해 조선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다. 해방 후 혼란을 중재하고, 대지주임에도 농지개혁에 적극 나섰고, 자유당 독재에 제동을 건 정치인이기도 했다.

저자들은 인촌 김성수를 조명한 서

적과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촌의 생애사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인물들을 인터뷰함으로써 독자들이 인촌의 진면목을 직접 보고 나름의 판단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덕분에 교육, 사업,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인촌이 이룬 큰 성취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졌다. 또한 그와 함께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 근현대사 속 큰 인물들의 삶도 생생하게 펼쳐져 거대한 대하 드라마를 이룬다.

인촌 개인을 넘어 시대에 대한 물음으로 확장될 탐사의 여정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 해방공간을 지나 제1공화국까지를 살아 낸 인촌의 삶은 격동의 시대를 관통했다. 탐사의 형식을 빌려 그의 흔적을 더듬어 쫓는 ‘인촌탐사’는 여섯 줄기의 길로 막힘없이 진행된다. 원로 법조인이진강 인촌기념회 이사장과, 원로 언론인 황호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원숙한 솜씨로 이야기를 엮은 덕이다.

우선 1부와 2부는 인촌의 탄생과 성장을 다룬다. 1부에서는 인촌의 내력과 그의 집안이 고향에 자리 잡은 배

경과 그의 초년기를 그린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신학문을 배우고 큰 뜻을 품은 채 유학길을 떠나는 과정을 따라간다.

이어 3부와 4부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인촌이 남긴 흔적을 재구성한다. 3부에서는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인촌이 민족을 위해 했던 일들을 중앙학교 운영, 3·1운동, 경성방직 운영, 동아일보 발행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4부에서는 훗날의 고려대인 보성전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촌이 쏟은 각고의 노력을 상세히 풀어 썼다. 동아일보가 폐간되기까지 겪었던 여러 곡절과 함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겪은 가족사를 엮어 인촌 개인의 삶 또한 같이 그린다.

5부에서는 인촌의 친일 문제에 대하여 복잡한 맥락과 여러 자료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동시대인의 평가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인촌의 적극적 지지로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던 농지개혁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한민당을 이끈 정치인 김성수를 조명한다. 6부에서는 독재를 막기 위해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조봉암까지 아우른 정치인 인촌의 행적을 부각한다.

추천의 글

김성수는 문화민족주의를 지향한 한국 근대화의 선구자다. 한민족이 처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을 숙고하고 민족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인재양성, 산업기반 조성, 계몽 운동을 확대해 나갔다. ... 이 책이 한국 근대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안몽필(일본 다이토분카대학 명예교수)

이 책은 인촌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한국근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연 책이다. ...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어, 책을 읽다 보면 인촌과 함께 숨 쉬고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준다. 인촌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개서가 될 것이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재회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김중순(미국 테네시대학 명예교수)

시대의 빛과 어둠, 시각과 해석의 차이를 통과하며 책은 '탐사'의 형식을 취한다. 그 발걸음을 주시하는 사람은 자연히 그만의 판단을 만들어 갈 것이

다. 그것이 살아 있는 역사가 지니는 힘이므로, 탐사의 여정이 인촌 개인을 넘어 시대에 대한 물음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이유다.

- 김금희(소설가)

저자 소개

이진강

고려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대 사법대학원을 수료했다. 육군 법무관으로 월남 전선에서 복무했다. 1971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23년 동안 검찰에서 일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근무할 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다. 1994년 검찰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울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해설』, 『80년 한결같이: 자서전』을 펴냈다. 홍조근정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황호택

1987년 <동아일보> 편집국 법조팀장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월항쟁을 취재했다. 이 사건으로 한국기자상을 두 해(1987, 1988년) 연속 수상했다. 월간지 전성시대에 『신동아』에 ‘황호택이 만난 사람’이라는 문패를 달고 인물탐구 인터뷰를 7년 동안 연재하고 <동아일보>에 ‘황호택 칼럼’을 집필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논설주간(전무)을 끝으로 36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했다. 현재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로 후학과 소통하고 있다. 저서는 『박종철 탐사보도와 6월항쟁』 등 20여 권이 있다. 『왕들의 길, 다산의 꿈, 조선진경 남양주』, 『대나무숲 담양을 거닐다』, 『서해의 에메랄드, 신안 천사섬』 등 탐방기를 시리즈로 펴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하서 문집 재번역 결실 눈앞에

2년간 국비 2억 5천 만원 지원,

전문가 8명 공동 작업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이 지난 2년간 2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추진한 하서 김인후 선생 문집 재번역 사업이 금년 7월 결실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최근 수년간 16세기에 호남이 배출한 학자와 문인의 문집 재번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 하반기에 정읍 출신 유학자 일재 이항 선생 문집을 발간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광주 출신 시인 놀재 박상 선생 문집을 재번역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서 올 7월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고전 번역가 8명이 2년여에 걸쳐 씨름한 장성출신 성리학의 대가이자 시인으로도 유명한 하서 김인후 선생 문집 재번역 책을 발간한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재번역 작업 막바지에 한국고전번역원의 평가를 무난히 통과해 훨씬 수준 높은 국역 문집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도 장성에서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하서선생기념사업회가 1987년에 세상에 처음 내놓은 『국역 하서 전집』(상, 중, 하 3권)은 원문과 번역문 모두 세로쓰기를 한 데다가 35년 전의 어투를 사용하고 있어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사계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알기 쉬운 현대어로 고치면서 각주도 풍부하게 보강하고 가로쓰기 방식으로 바꾸어 가독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는다.

한편 울산김씨 문정공대종중과 필암서원 산양회는 뜻깊은 하서 문집 재번역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에 많은 종친과 회원의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와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 9곳의 관계자도 초청해 고전의 재번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서집』은 성리학자이자 시인이었던 하서 김인후 선생의 문집이다. 이 책의 초간본은 문인門人 조희문·백광훈·양자징 등의 초본·교정과 전라도 관찰사 송찬宋贊의 협조로 1568년(선

조 원년)에 간행되었다. 초간서에 의하면, 당시 여러 문인에게 흠어져 있어서 미처 수집하지 못한 유문을 별집으로 간행할 것을 기약하고 있다. 초간본은 부사賦辭 1권, 시詩 12권, 잡저雜著 2권으로 편찬되었고, 선생의 큰 사위인 부사 조희문의 서序가 붙어 있다. 현재 초간본 완본完本은 전란으로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고려 대학교 만송 문고에 권3~6까지의 영본零本 2책이 소장되어 있다.

그 후 김수항金壽恒이 김인후의 현손玄孫 김시서金時瑞, 외증손 이실지李實之 등과 함께 초간본에 부록을 첨부하여 14권으로 재편하고 별집 9권을 추가하여 1686년(숙종 12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중간본에는 송시열宋時烈의 서문과 박세채朴世采의 발문이 있으며, 현재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1796년 정조의 왕명에 의해 삼간三刊 작업이 시작되었다. 정조는 하서를 문묘에 배향할 때 하서의 후손 김직휴金直休를 직접 불러 만나보고 유집 간행의 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일주金日柱를 비롯한 후학들이 원집과 별집을 합해 문체별로 새롭게 편집 증보

하여, 전집全集이라 이름했다. 또 연보年譜를 첨부하여, 1802년(순조 2년)에 원집 12권, 부록 4권, 총 8책으로 완성하였다. 발문은 돈암 이직보가 지었다. 삼간본은 전집본全集本으로서 현재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가람 문고,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장서각, 국립 중앙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는 1987년~1988년에 하서선생기념사업회가 『국역 하서전집』을 3책으로 발간했다. 원래 총 8책으로 이루어진 전집을 국역까지 해서 3책으로 만들다 보니 활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현대인들에게 하서를 알리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전집 하권에는 ‘백련초해百聯抄解’ ‘하서초천자河西草千字’ ‘하서유묵河西遺墨’ 등을 추가로 수록하여 간행했다. ‘백련초해’는 칠언절구 100수를 글자마다 하나하나 음훈과 훈訓을 달고 우리 글로 번역한 것이며, ‘하서 유묵’과 ‘하서 초천자’는 하서의 친필로서,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의 소장본을 고증해 새로 추가한 것이다. 다만 30여 년 전의 국역이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세대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국가기관인 한국고전

번역원이 『하서전집』 해제解題를 싣고 있는데 만족하지 말고, 조선왕조실록 처럼 어투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번역을 해주도록 건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최근 국비 지원을 받아 재번역을 했고 한국고전번역원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확정했다니 다행한 일이다.

필암서원 ‘하서 작은도서관’ 개관

장서 4천여 권, 송의재·한장사 활용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 일부 건물이 다른 서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색다른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사)필암서원산양회는 올해 3월 4일부터 필암서원 송의재와 한장사 건물을 ‘하서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도서관은 연간 4만 4천여 명에 이르는 필암서원 방문객과 인근 황룡면을 비롯한 장성군 관내 주민이 이용하게 된다.

산양회는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서원 내 여러 곳에 분산 관리하던 기

존 도서 3,000여 권을 한곳에 모아 찾아보기 쉽게 분류 작업을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작은도서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서를 갖추어 12월 26일 장성군에 도서관 등록을 마쳤다. 이어서 김양수 산양회 이사(전 장성군수)를 도서관장에 임명해 출범을 준비했다. 장성군 관내에는 진원면과 삼서면에 각각 한 곳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하서 작은 도서관 등록으로 모두 세 곳이 됐다.

개관 준비 소식을 듣고 학술원 회원이자 서울대 명예교수인 필암서원 박병호 원장이 평생 애지중지해온 책 1,000여 권을 기증해 장서는 순식간에 4,000권으로 늘어났다. 십진분류법(KDC)에 의한 도서목록을 작성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돼 개관 시기를 올 3월로 늦추기까지 했다.

현재 하서 작은도서관 면적은 송의재와 한장사를 합쳐 62㎡이고 열람석은 10석이며 보유 도서 4,500여 권 중 1,600여 권은 열람과 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시설과 장서는 도서관법이 정하는 기준을 웃돌고 있다.

하서 작은도서관은 설날·추석 연휴 기간을 빼놓고는 사실상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단 12시~오후 2시 점심시간은 제외). 현장에서의 당일 열람은 물론 신분증을 제시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2주일 한도 내에서 외부 대출도 가능하다. 한편 필암서원산양회는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인협회의 협조를 받아 매일 교대로 한두 명씩 서원에서 근무해온 문화관광해설인 15명이 도서 열람과 대출 편의 제공을 자원 봉사하기로 합의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중 (사)지방협력연대가 소정의 재정 지원을 하고 성과를 분석해 계속 같은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로써 필암서원은 우동사 담장 밖에 있는 장판각(오늘날의 출판사 기능수행)과 함께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은 장서각을 부활한 셈이 됐다. 장서각이 바로 현재의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의 사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영주 소수서원에는 장서각 건

물 한 동이 옛 모습 그대로 있고, 퇴계 선생을 모신 안동 도산서원에는 광명실이라는 이름의 장서각 건물이 두 동이나 있지만, 속은 모두 텅 비어있다.

이런 가운데 필암서원 ‘하서 작은도서관’이 유달리 수천 권의 장서를 갖추고 서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도서 열람과 대출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게 돼 기대가 크다. 필암서원 산양회는 ‘하서 작은도서관’ 개관에 즈음하여 지난 해 구축한 자체 홈페이지에 도서관 전용 코너를 만들어 네티즌들에게 1,600여 권의 외부 대출이 가능한 도서목록을 선보이고 있다.

산양회, 동신대와 손잡고 학술대회 개최

“하서 선생과 필암서원”을 K-문화관광 대표 브랜드로

호남 유일의 문묘 배향 유학자인 하서 김인후 선생과 하서 정신을 기리는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 세대와 전 세계가 공감하는 K-문화관광 자산으로 본격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중 나주에 있는 동신대 캠퍼스에서 열리는 “하서 김인후와 장성 필암서원 재조명 학술대회”가 그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필암서원 산양회는 동신대 글로벌문화관광사업단(단장 류갑상)과 손을 잡고 3월 14일 동신대 중앙도서관에서 남도 유학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산양회원, 유림 지도자, 학자 및 대학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장·청년층이 머리를 맞대고 호남 유일의 문묘 배향 유학자인 하서 김인후 선생의 위상과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등재된 장성 필암서원의 가치를 집중 조명한다.

민간연구단체와 대학 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1시간 40분간에 걸쳐 3인의 전문가 강연과 대학생들과의 질문 및 답변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가 “하서 선생의 생애와 장성 필암서원”이란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며, 김경호 전남대 교수가 “하서의 마땅함과 삶의 정성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박명희 전남대 교수가 “하서 김인후의 시를 통한 민속 놀이문화의 형상화”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사)필암서원산양회는 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뿌리 깊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사단법인으로 승격한 이후 최근 20여 년간 매년 2회의 학술강연과 연간 두 차례씩 발간하는 학술소식지 ‘하서 도학과 문학’을 통해 하서 정신의 계승 발전에 힘써왔다. 지난해부터는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초에 서원 일부 건물을 활용한 ‘하서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다각적인 운영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하서 김인후 선생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심지어 전라도 내에서도 장성, 광주, 담양, 순창 등 몇몇 연고지를 제외하면 하서와 필암을 아는 이가 드물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사)필암서원 산양회는 그동안 장성과 광주를 오가며 후손과 유림 위주로 학술강연회를 개최하던 미시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더 멀리 내다보고 더 깊게 들여다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전남·북 지역을 순회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문호를 개방

하는 혁신형 학술 행사로 개최하겠다는 것이 산양회 측의 포부다. 한 산양회 관계자는 세계유산 필암서원이 남도 유교 문화 중흥과 역사문화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과의 교류 협력과 상부상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동신대를 찾아 나선다고 말했다. 천년 묵사골로 유명한 나주는 전남 유림회 관도 이곳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고장이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정공 대중중,

2025년 정기총회 개최

울산김씨 문정공 대중중/필암서원(도유사 김상백)은 2025.2.13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하서 선생 종가에서 서울, 광주, 대전, 순창, 장성 등지에 사는 55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월 5일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2024년 결산과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원안 의결된 2025년 문정공 대중중 예산은 전년 예산보

다 167,093천 원이 증가된 589,676천 원(정기예금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68,200천 원)이고, 필암서원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896천 원 감소된 147,648천 원(정기예금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는 66,100천 원)으로 밝혀졌다. 문정공 대중중 예산 중 보조사업 지원은 필암서원에 5,000천 원, 산양회에 5,000천 원(하서도서관 운영 3,000천 원 포함)이 각각 계상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6·25 전쟁 직후 하서 선생 부조묘 복원에 지대한 공적을 세운 백천 김인수 선생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 종가 제실에서 김치근 종손이 초헌관으로 참례한 가운데 모든 자손들이 선조고 문정공 하서 김인후 선생과 선조비 여흥 윤씨 합제를 봉행했다.

참고로 백천白川 김인수金仁洙 선생 先生 (1887~1972)은 장성군 북하면에 태어나 젊은 시절 金性洙, 金炳魯, 宋鎭禹, 白寬洙 등과 동문수학하며 학업에 전념했다. 1918년 사립 약수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에 취임하여 인재양성에 진력했고, 1924년 장성군 북하면장에 취임한 후 청렴결백한

품성이 인정을 받아 여러 차례 중임했으며 장성군민의 추대로 전라남도 평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일제 식민 통치 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맹 퇴치(한글 보급)운동 전개, 민족주의 단체인 신간회 운동 지원, 물산장려 운동, 산림조합 창설과 조림 운동, 조선인 초등학교의 수업료 인하 운동 등 애국 애족 활동에 헌신하신 분이다.

특히 공인으로서 공선사후를 실천하면서도, 명문대가인 울산김씨 자손에 대한 자긍심으로 문정공 하서 선조 숭상과 정신 계승에 남다른 기여를 했다. 1953년~1957년까지 북하면 중평리로 종택 이전과 부조묘 건축을 주도했다. 백천 선생은 문정공 부조묘 건축기성회 실무를 총괄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이 위원장을 맡고 수당 김연수 선생과 함께 백천 김인수 선생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런 분들이 앞장서 문중의 중지를 모으고 재원을 마련하여 오늘의 종택과 사당을 재건한 것이다.

인촌 김성수 선생

서거 70주년 대토론회 광주서 열려

인촌포럼 “인촌에게 통합의 길을 묻다”

토론회 주최

인촌 김성수 선생 서거 70주년을 맞아 선생의 생애와 업적, 사상과 철학을 재조명하는 대토론회가 2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 김대중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되었다. 광주, 전남·북에 사는 울산김씨 후손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시·도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이 오른 이날 모임은 식전 행사로 판소리와 민요로 구성된 20분간의 추모 공연이 펼쳐졌다.

인촌 김성수 선생(1891~1955)이 걸 어간 삶의 궤적은 그가 살아간 시대만큼이나 복잡하다. 조선 말에 태어나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친 후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인촌은 교육자, 언론인, 사업가, 정치가로서 국가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런데도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불거진 이른바 친일 프레임으로 명예가 손상되는 불운을 겪었다. 최근 출간된 『인촌탐사』(나남)라는 김성수 평전은

그의 복잡 미묘한 삶을 잘 조명하고 있다.

인촌은 호남 최고의 만석꾼 집안에서 장손으로 태어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 유학을 다녀와 민족의 미래가 교육에 있다고 판단해 중앙학교(현 중앙고)와 보성전문(현 고려대)을 잇달아 인수하며 본격적인 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대지주의 삶을 벗어난 그의 광복 행보는 교육계에 그치지 않았다. 동아일보를 창간해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경성방직을 설립해 한국 산업계에 마중물을 놓았으며, 한국전쟁 기간에는 제2대 부통령을 지내며 전쟁이 몰고 온 혼란을 수습하는 데 진력했다.

그런데도 일제 강점기에 교육자·언론인·사업가로 살면서 총독부와 접촉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신문 기고문이나 연설의 친일 발언만 들추어 내 흠집을 냈다. 일본의 귀족원(일본 제국의회 상원) 작위를 거부한 일이나 도산 안창호 등에게 독립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 등은 간과하고 건국훈장을 취소하는 우를 범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날 대토론회에서 인촌의 진면목을 재조

명하고 복권과 명예회복에 대한 발언이 줄을 이었다.

라종일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는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장관의 인사말에 이어서 윤평중 한신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가 “21세기에 인촌을 다시 읽는다”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윤 교수는 대한민국은 현재 내란 계엄을 넘어 내전 반보 직전의 민주공화국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면서, 인촌의 공선사후(公先私後)와 신의일관(信義一貫), 통합과 겸양의 리더십이 적대 정치에 대한 근원적 치유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촌은 고하 송진우와 더불어 대표적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분이 틀림없다며 교육자, 언론인, 기업가, 정치인으로서 자유민주적 공화주의자이자 이상주의적 현실주의자였다고 규정했다. 특히 1952년 인촌의 부통령 사임서 중 “대한민국의 최고 집정자가 돌연 비상계엄의 조건이 하등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임시수도 부산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중략) 폭거를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국헌을 전복하고 주권을 찬탈하는 반란적 쿠데타

가 아니고 무엇입니까?”란 대목을 소개해 참석자에게 큰 울림을 전달했다.

본 행사 2부 순서로는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인촌과 후광, 통합의 지도자”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박 지사는 발제를 통해 인촌 김성수 선생과 후광 김대중 대통령의 공통점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를 표방한 지도자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렬 전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현대사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과 포용적 자유주의자 김성수”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는 한국은 민족주의가 강한 편이고 상당 기간 반공주의가 위세를 떨친 아픈 과거가 있다면서, 을사늑약 120주년이자 인촌 서거 70주년인 올해를 맞아 당면한 정치 갈등을 해소할 지혜를 인촌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의 진취적 지주 세력이었던 인촌이 畿湖 세력이 건립한 중앙학교, 보성전문학교, 경성방직을 인수해 근대적 교육기관과 기업으로 육성한 업적을 부각했다.

이어서 오수열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이승렬 전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조정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

학과 교수,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 황호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인촌 생존 당시의 시대 상황과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비교하며 인촌의 통합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토론이 끝난 후 청중들은 ① 호남의 초·중·고 교육과정에 인촌 선생과 고하 선생의 애국정신을 반영할 것 ② 호남의 정치인들은 인촌 선생의 서훈을 취소한 과거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것 ③ 호남의 시민단체도 인촌 선생의 복권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 등 3개 항이 담긴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행사 3부에서는 신광조 인촌 사랑방지기의 추념시 낭독, 최영대 인촌포럼 대표의 추모의 노래가 피날레를 장식했다.

남문창의 맹주 김경수 선생 기리는 학술대회 열린다

장성문화원 후원으로 5월 초

장성문예회관 대강당에서

남문창의의 맹주 오천공 김경수 선생을 기리는 학술 대회가 5월 8일 장성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증유의 국난인 임진왜란을 맞아, 구국의 횃불을 드높이 올렸던 오천공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장성문화원(원장 김봉수) 후원으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장성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 행사로, 임진왜란과 의병사를 전공한 국내 역사학계의 권위자를 발표자로 초빙한다. 김정태 교수(전남대)가 ‘임진 정유왜란 시기 호남 의병사에서의 남문창의의 위치와 의미’를, 김한신 교수(충북대)가 ‘장성 남문 의병진의 전쟁 인식과 성격’, 이경동 교수(공주대)가 ‘오천 김경수의 학맥과 그의 삶’의 순서로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좌장은 김동하 교수(전 서영대)가 맡게 된다.

울산김씨 가문의 자랑스러운 선조인 오천공 선생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남문창의의 맹주로 추대되어 도내의 의병을 모집하여 전선에 보내는 등 눈부신 활약을 했다. 또한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한 두 아들인 극후와 극순은 진주성 싸움에서 장렬하게 순국함으로써 호남 의병의 기상을 떨친 바 있다. 한편 둘째 며느리는 부군인 극순의 순국 소식을 듣고 강물에 몸을 던져 순절함으로써 추상과 같은 절개를 드러내기도 했다. 오천공 부자의 국가를 위한 헌신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책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전형으로 칭송되고 있다. 또 하서의 학문과 오천공의 절의는 장성을 비롯한 호남인들에게 위대한 역사로 길이 남을 것이라는 평도 전해 온다.

장성문화원, 하서 선생 시詩

300여 수품 단행본으로

올 하반기 선정 및 번역,

내년 전반기 시집 출판

장성문화원(원장 김봉수)은 장성군의 지원으로, 하서 선생의 시 가운데 절구와 읍시를 중심으로 가장 문학성

이 뛰어난 작품 300여 수를 선정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올해 후반기에 시작될 하서 시의 선정과 번역 및 해설은 국내 최고의 한시 전문가에 의뢰하여 진행한다. 내년 전반기에 완성될 시집의 출판은, 하서 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울산김씨 대종회, 청소년 여름캠프 연다

**8. 22.~8. 24. 필암서원·훈몽재에
40여 명 초청**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여름에 실시해오던 “울산김씨 후손 청소년 하계 교육수련회”가 중단된 지 25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울산김씨 대종회(회장 김상국)는 올해부터 여름 방학 기간 중 장성 필암서원과 순창 훈몽재에서 내일의 주인공인 2세, 3세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청소년 캠프』를 열기로 했다. 대상자는 전국 각지에 사는 울산김씨 중·고·대학생으로 참가 신청을 한 40여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대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에 전통적인 가치관이 희박해지고 전래의 미풍양속이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명문대가인 울산김씨가 앞장서서 극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울산김씨 후손들이 명문 후예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강의와 함께 협동심과 호연지기를 불어넣는 현장 학습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종회는 이를 위해 기본 계획을 마련한 후 하서 작은도서관(관장 김양수)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다. 강의는 가문의 내력과 전통, 하서 선생의 도학과 절의 정신, 남문창의 맹주 김경수 선생의 삶, 인촌과 수당 선생의 생애와 사상, 종친 간 호칭과 예절 등이며, 강사진으로는 김재수(전)광주교대 교수, 김병기(전)전남대 학장, 김용하(전)광주고 교장, 김동하(전)서영대 교수, 김영미 동신대 교수 등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봉사할 예정이다. 현장 탐방은 필암서원, 훈몽재, 민씨 할머니 묘소, 하서 선생 묘소, 가인 선생 생가 등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필암서원 산양회 활동사항

- 2023년 3월 10일 춘향제 봉행. 초헌관 이배용 위원장 ‘인성교육과 서원’ 강연
- 2023년 3월 24일 김기현 전북대 교수 집성관에서 ‘정명(正名)의 정신’ 강연하고, ‘하서 도학과 문학’ 38호 간행
- 2023년 10월 26일 초헌관 노형욱 전광찬 현직하고, 춘향제 봉행하다
- 2023년 11월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김동하 서영대 교수 ‘하서와 채중길의 교우 양상’ 강연하고 ‘하서 도학과 문학’ 39호 간행
- 2024년 3월 25일 춘향제 봉행하고 초헌관 김영근 성균관 재단이사장 청절당에서 ‘효와 진정표(陳精表)’ 강연하다
- 2024년 3월 기세규 박사 ‘기소불욕 물시어인’의 진저한 의미를 찾아서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강연하고, ‘하서 도학과 문학’ 40호 간행
- 2024년 5월 10일 집성관에서 세계 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주최로 ‘세계 유산 등재 이후 지속가능한 서원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9개 서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서원 국내 학술포럼 열렸다
- 2024년 6월 27일 서울 발명회관에서 열린 ‘퇴계·하서 학술회의’에 산양회 임원진 10명 참석
- 2024년 9월 13일 산양회 홈페이지 시연한 다음 임시 개통하다
- 2024년 9월 26일 춘향제 봉행하고, 초헌관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오늘에 필요한 주인정신’을 주제로 ‘호남사상 계승해 지역발전 지속해 나가자’고 강연하다
- 2024년 11월 29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신광조 공동대표가 ‘인의사상(홍익+사랑)의 부활만이 시대정신이요, 어지러운 한국사회의 나침반이다’ 강연하고, ‘하서 도학과 문학’ 41호 간행